

‘농산업인재’ 육성으로 농업의 희망을 연다



김성아_농업인재개발원 교육지원팀장

정부,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업인’ 비전 설정
농업인의 자발적 학습 노력과 혁신 있어야

21 세기는 ‘인재’의 시대다. 최근 농산업은 물론이고 사회 전분야에서 ‘인재’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자원이 있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하는 성과를 내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라는 것이다. 좁은 국토와 빈약한 자연자원 등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세계가 놀라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일궈낸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재산은 ‘우수한 인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더욱이 사회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인재’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과 관점도 대폭 바뀌고 있다. 즉, 과거 단순하게 열심히만 하면 부지런한 사람으로서 덕목을 인정받던 시대를 넘어 현재에는 창의적으로 일하여, 효율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내는 사람이 뛰어난 인재로서 손꼽히고 있다.

식품·수산 등 농산업 영역의 확대, 농산업인력의 감소 및 노령화, 안전 및 고품질 농산물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 변화, 다변화되는 농산물유통 환경, FTA 등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농산업시대의 대두, 농기업 및 법인의 증가 등 농산업 환경은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같이 급변하는 농산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농산업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농산업의 새로운 미래와 가능성을 열어가기 위해서 역량있는 ‘농산업인재’의 양성은 어느 타산업 분야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농산업인재’ 교육은 1차적으로는 국가산업적 관점에서 산업인력 양성 측면으로서 중요하며, 동시에 개별 농업인의 자기계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 등 평생교육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농산업인재’ 양성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첫 번째는 젊고 유망한 신규 후계농산업인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기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산업인력의 역량을 높여 우수한 인재로서 육성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식 중 첫 번째 방법은 대표적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등으로, 정책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창업계획과 경영능력을 갖춘 성장가능성이 높은 농업경영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9월 충남 부여 토마토 시험장에서 한국작물보호협회 주관으로 실시한 농업인 대상 「농약의 올바른 사용 교육」

교육적인 영역에서는 농고, 농대생 등 미래농업인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예비농업인에 대한 농고 특성화프로그램, 농대영농정착과정 등을 통해 농업의 매력과 가능성을 느끼게 하고, 직업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현장체험교육, 동아리 활동, 멘토링 등을 통한 성

공한 농업인과의 만남 등이며 매년 농고 10개, 농대 11개 학교가 지원을 받고 있다.

‘돈’도 ‘환경’도 아닌 ‘우수한 사람’ 육성집중

보다 직접적으로 교육과 연계된 분야는 두 번째 방식인 기존 농업인을 육성하는 방법이다. 과거 식량증산시대, 녹색혁명의 기술보급훈련부터 지금까지 농산업 현장에서 교육은 계속 추진돼 왔으나 체계적인 농업교육과 인력 양성이 고민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십수년동안 십수조원에 이르는 농업정책자금의 투입과 다양한 정책사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결국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환경’도 아닌 ‘우수한 사람’이라는 데에 집중하게 된다.

정부는 농산업을 이끌고 갈 우수 농업인재 양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 제언 -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방안

농업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2009년 2월 농업인재개발원을 설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농산업인재 육성과 농업교육에 대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농업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이고 질 높은 농업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최종수요자인 농업인들이 만족하고 소득 증대, 역량 강화 등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년부터는 농업교육에 전면적인 공모제도를 도입하여 경쟁 체제를 구축하였다. 농업인교육 공모는 바람직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운영기관을 발굴하여 농업인들의 현업에 실익이 되는 교육과정을 서비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공모분야는 ▲창업·경영·마케팅 ▲조직화·농촌·리더십 ▲친환경·품목기술 ▲소비자·청소년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11년에는 공모시스템을 대폭 개선, 농업인 공모를 전년도 12월에 실시하여 1월부터 교육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겨울농한기 교육이 가능해지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올해에는 1차 공모를 통해 총 40개 기관, 59개 과정이 선정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산업의 지원세력 구축과 소비자 인식

개선을 통한 농산업 가치 확산 등을 위해 귀농귀촌교육과 소비자·

청소년 교육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귀농귀촌교육의 경우 최

근 2~3년간 관심이 대폭 고조되면서 도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야별·교육과정별 운영기관, 주요내용, 대상, 프로그램 일정 등 세부적인 정보는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www.agriedu.net)에서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현장지향형 교육의 또 다른 사례로 농업마이스터대학이 있다. 2009년 개교하여 2년 과정을 이수한 1기가 수료하고, 올해부터 2기 과정이 시작되었다. 전국 9개 대학 88개 과정에서 1,900여명의 농업인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는 농업마이스터대학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실용·실습교육방식을 도입하여,

대한민국 농업마이스터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수한 기술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현장농업인들을 통한 실습교육을 도제방식으로 전수하는 「WPL(현장실습교육)교육」과 네덜란드 등 일류농업교육국가의 교수 수준으로 국내 실습교수들을 양성하는 「품목실습전문교수」사업 또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의 하나다.

또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농업교육을 실시하고자 정부는 '10년 12월 농업교육 3개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3년 동안의 농업교육 정책방향을 밝힌 바 있다. 농업교육 3개년기본계획을 통해 농업교육의 비전을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업인'으로 설정하고 전략목표로서 ▲농업교육 평생학습체계 확립 ▲성과중심의 농업교육 운영 ▲예비농업인 육성 교육 강화 ▲농업교육 기반 및 지원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인의 자발적인 학습 노력과 혁신하려는 고민 없이는 정부의 교육에 대한

우수한 농산업인재 육성을 통한 농산업 발전,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농업인 스스로가 교육과 학습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선택하여 끊임없이 역량을 높이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력과 지원,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도 공염불에 끝날 수밖에 없다.

현장농업교육 중 일부는 여전히 공짜교육, 동원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교육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교육이 필요한 농업인은 교육정보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운영기관은 교육생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아이러니도 빚고 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했던가. '사람'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이 필연적으로 커져갈 수밖에 없는 21세기, 정부는 본격적인 농산업인재 육성과 농산업교육 강화를 농업정책의 중요 의제로 선택했으며 더욱 가속을 높일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와 농업인재개발원, 농업교육운영기관, 농업인 교육생 등 각 농산업교육주체들이 가슴을 열고 머리를 맞대며 산적한 숙제를 풀기 위해 지혜와 신뢰를 모아야 한다. '농산업교육을 통한 농업 발전, 농업인의 행복'이라는 농업교육의 정책목표는 정부 등 한 주체의 일방적인 지원과 주도가 아니라 농산업교육 각 주체가 제 역할을 해낼 때만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㉞